

山丁의 최근작 文氣에서 나온 抽象

鄭 秉 寬

梨花大學教授 美術評論

山丁작품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것 같다. 항상 소란한 음악을 멀리하고 깊은 밤을 독서와 명상, 그리고 그림그리는 일에 몰두하는 山丁의 생활습관이 그림속에 스며있는 것 같다. 무한을 생각케 하는 활짝 트인 화면공간속에 가장 간결한 형태를 빈틈없는 구도속에 배치한 묵적(墨蹟)들은 “기(氣)”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힘”이라는 말에 신비(神秘) 또는 숭고(崇高)와 같은 말들을 더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현대회화가 재즈음악의 리듬감 같은 것에 은연중에 침투되어진 것과 비교하면, 山丁의 그림은 고전적인 인간의 작품이며, 칸딘스키가 생각한 숭고한 형이상학적인 회화에 속한다. 그 형식과 내용이 영혼의 움직이는 기능에 집약(集約)되어서 속세를 한참 떠나 있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너무나 고고(孤高)하여 쉽사리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정신의 세계속에 그의 작품은 있는 듯하여 때로는 보는 이에게 절망감마저 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산정의 특징(特徵)인 동시에 강점(強點)인 것이다. 즉 난해하지만 때로는 난해성은 작품의 고귀성(高貴性)과도 접근되기 때문이다.

산정의 그림이 완전히 “직관”의 원리 위에 기초를 둔 문인화(文人畫)의 한 전통(傳統)과 직결(直結)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적(西歐的)인 추상화의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은 특이한 추상성(抽象性)을 가지고 있다. 넓은 화면에 점을 몇개 찍은 “비명(碑銘)”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점(點)이나 선(線)들이 모두 문자에서 시작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되는 작품들 또한 사람 인(人)자에서

시작된 상형문자(象形文字) 같은 기호(記號)와 인간의 여러가지 형태사이에서 탄생한 추상적인 선과 점으로 된 그림이다. 점이 머리를, 선이 동체와 사지(四肢)를 축약(縮約)하여 그런 것인데 때로는 전연 추상적인 선과 점의 연속 같다. 연속무늬라는 느낌이 없는 것은 선의 강약이 자유롭게 전개되어서 하나도 동일한 형태나 점이 없기 때문이다. 군중(群衆)이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것같은 구도가 있는데, 발묵(潑墨)과 석묵법(惜墨法)의 자유로운 구사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대각선 방향(對角線方向)으로 질주(疾走)하는 붓의 힘이 지 사람의 형태 그 자체의 운동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간보다, 군중을 연상시키는 화면들이 많은데, 이것은 대도시의 인간홍수상태(人間洪水狀態)와 그 역동적(力動的)인 밀리고 밀치는 활력(活力)같은 것을 생각케 한다. 원근에 따라 정돈된 형태들 속에서도 화면 가득히 찬 선들은 순수조형(純粹造型)으로서의 가치(價値)가 인간 표현적인 가치보다 우세하다. 즉 인간형성은 조형성(造形性)을 위한 핑계와 같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주제의식(主題意識)을 부정할 수 없다.

붉은색 원형들레를 춤추며 돌아가는 군상들은 발묵(潑墨)효과에서 오는 회화성이 인물표현이라는 측면을 압도한다. X자형의 큰 기호형태(記號形態)는 머리를 암시하는 약한 점이 없다면 순수 추상적인 기호가 될 것이다. 금석문(金石文)이나 문자의 발생기에 출현한 것 같은 기호 등은 잘 보면 여러가지 몸자세의 변화상(變化相)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그림 역시 그 호방(豪放)한 필법의 효과가 상형성을 압도한다. 채색이 없는 검정색의 선묘형상(線描形象)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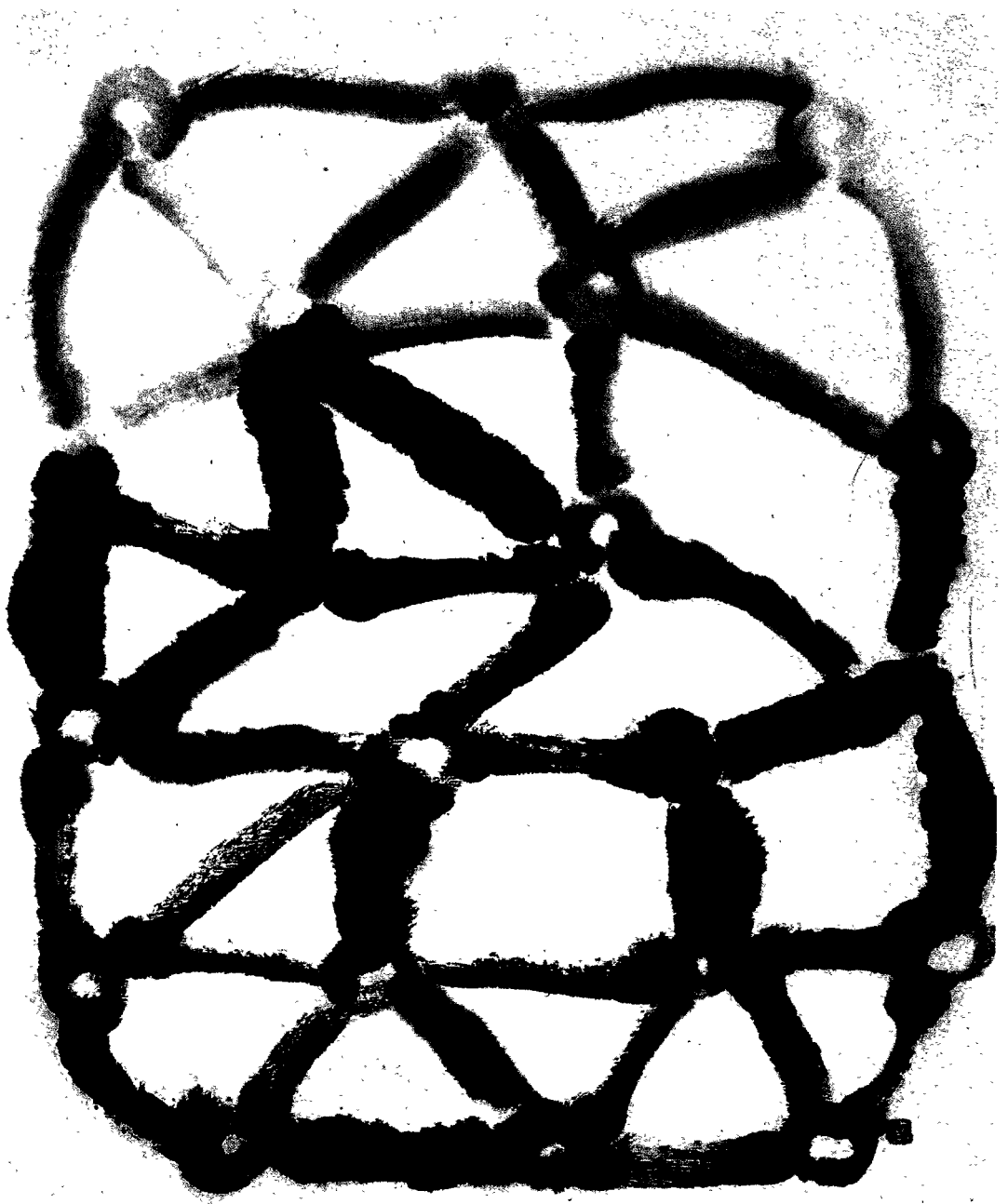
그 기묘적인 성격과 그 힘과 그 자발성을 채색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낸다고 본다. 붓을 두서너번 늘린 선화(禪畵)같은 그림들은 기교(技巧)없는 묵적(墨蹟)의 지고(至高)의 상태(狀態)라 할 것이다.

필법에 변화가 있다면 지난날에는 기교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교(技巧)를 포기한 단순화가 두드러진다. 붓으로 그렸다가 보다는 붓을 던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 될 것이다. 붓의 전진(前進)하는 속도감(速度感)과 상하(上下)로 누르고 베는 강약의 압력은 낭만적인 금선(琴線)의 무쌍한 변화와도 같다. 우연적인 지고(至高)의 효과(效果)를 가지오는 발묵법과 운필법은 산정그림의 기본적인 필법이다. 그리고 여백(余白)은 형태보다 강하여 동양화의 진수를 체득한 화면공간 구성이 된다. 여백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구도인 바, 연필로 그린 많은 에ски스가 그림이 될 때에는 형태와 여백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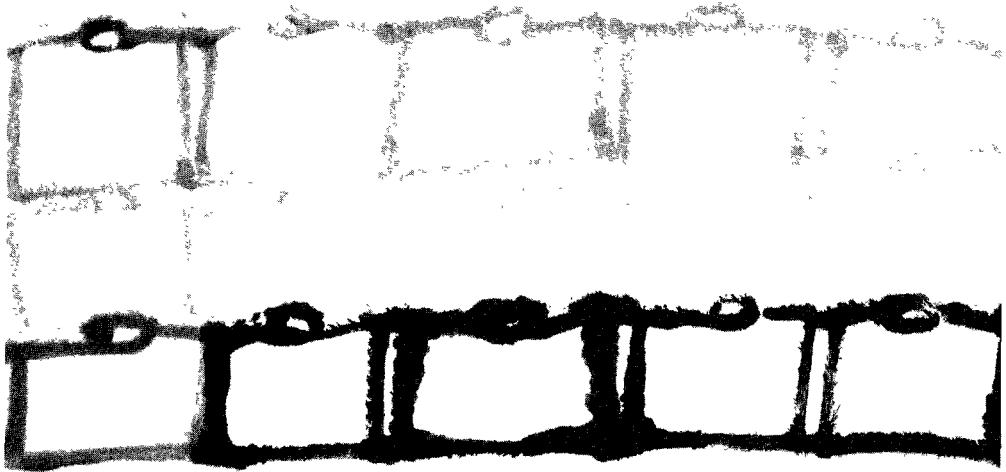
합적으로 단번에 해결되며, 분리되어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 형태가 여러개 집합되어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백과 함께 단번에 형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패없는 걸작은 때로는 많은 파지(破紙)속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선택에 불과할 수 있다. 바로 이 선택(選擇)의 안목(眼目)이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예술가의 자질일지도 모른다.

지(紙)·필(筆)·묵(墨)을 최대한의 경제성(經濟性)에 입각하여 구사하는 능력이 산정이 갖춘 강력한 무기인 것 같다. 스스로없이 필력(筆力)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화가 산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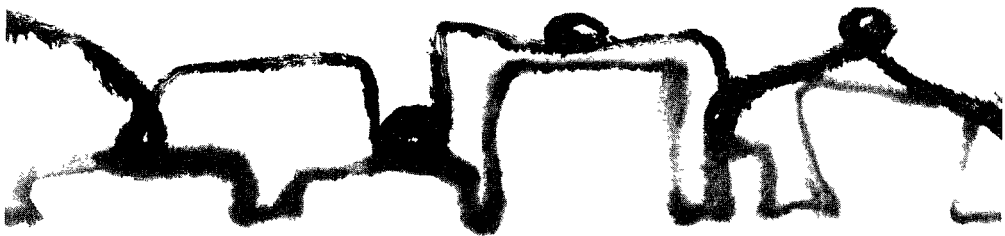
필력은 필연코 정신의 영역으로 그 근원을 찾아야 하며, 이것은 그의 방대한 장서와 독서력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그의 추상은 문기(文氣)에서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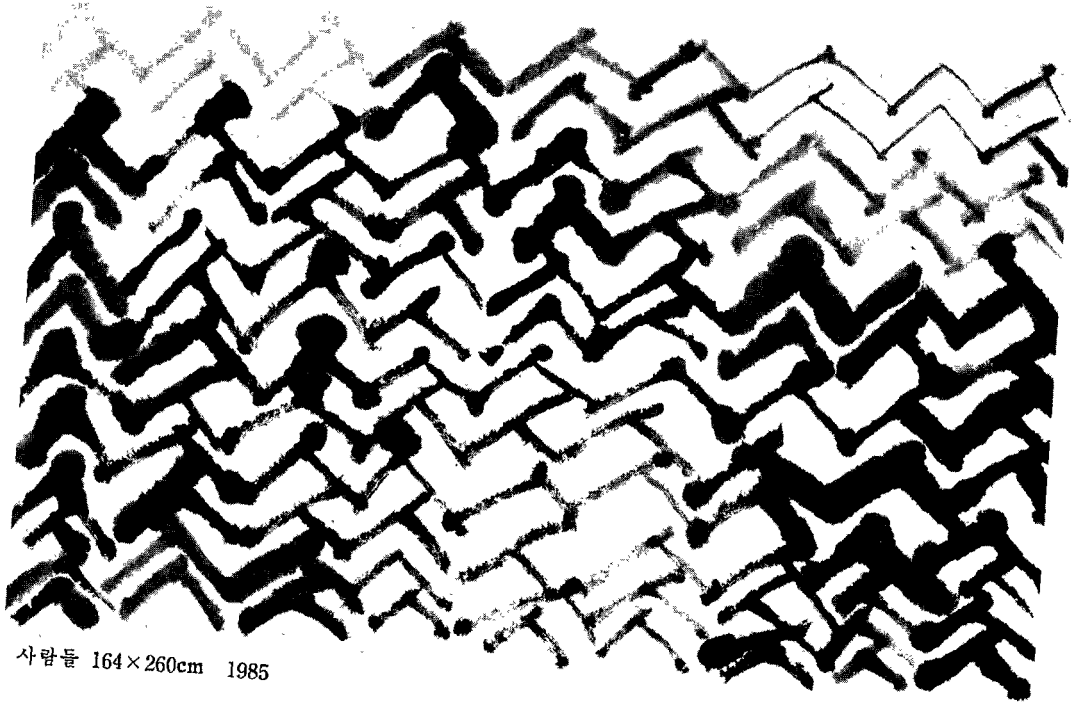
사람들 163×132cm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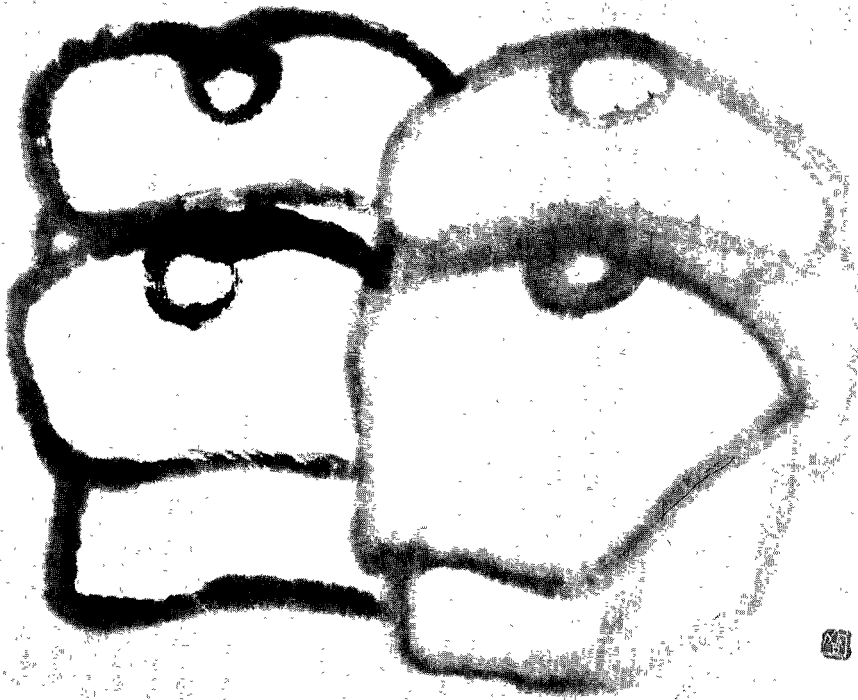
사람들 164×260cm 1985



군무 132×163cm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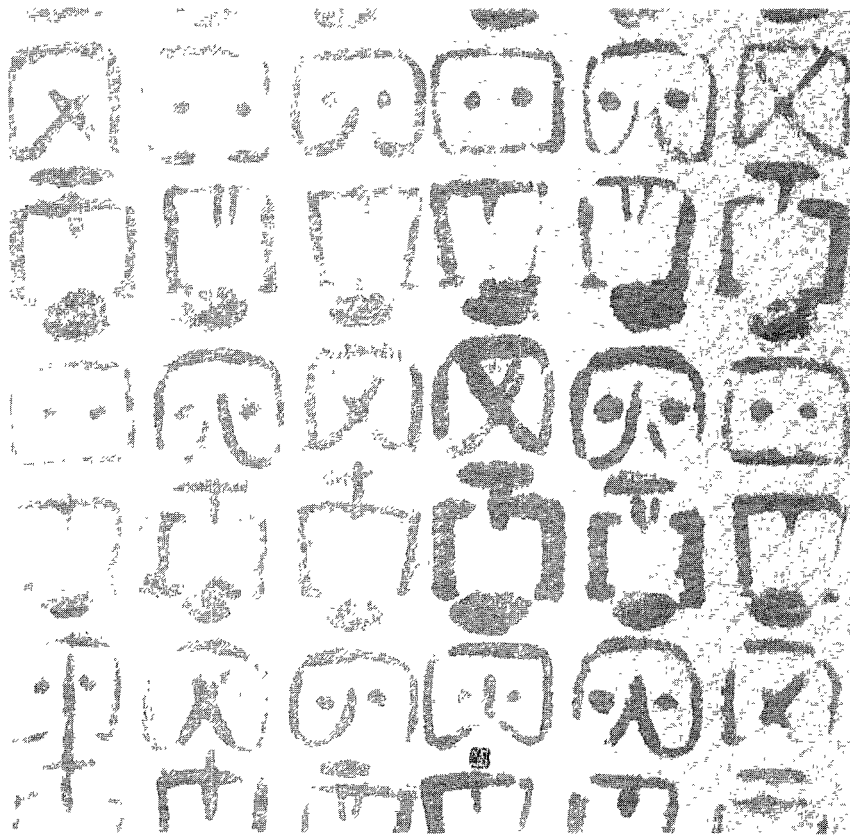
사람들 164×260cm 1985



사람들 85×116cm 1989



정오의 원무 80×87cm. 1989



사람들 132×135cm 1989